



지식재산(IP) 금융,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 지식재산(IP) 금융,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은행으로 확대 추진 -
- 지식재산처·보증기관·인터넷전문은행 업무협약(MOU) 체결 -
- 비대면 지식재산 보증대출 추진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

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통한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식재산(IP) 보증: 보증기관이 기업 보유 IP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토스뱅크(대표 이은미)와 6. 4.(목)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비대면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지식재산(IP) 금융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활동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대면 방식의 지식재산(IP) 금융을 인터넷은행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확장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보증기관과 함께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연 1조원 규모 공급중이다. 인터넷은행 3사에서도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되어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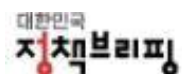
또한 인터넷은행을 통한 대출의 경우 대면상담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대출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보증기관과 인터넷은행 3사, 지식재산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절차, 보증기관-인터넷은행 간 자료 전송 기반 구축,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방안, 고객 발굴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27년 하반기부터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상품 출시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는 고유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식재산(IP) 금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대면 지식재산(IP) 금융 상품 출시를 목표로 보증기관과 인터넷은행 간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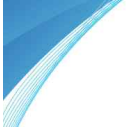
※ 붙임: 업무협약 체결식 현수막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부서	지식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유용신 (042-481-3542)
	지식재산거래과	담당자	사무관	양정주 (042-481-1658)



붙임

비대면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현수막



지식재산처 KIPR 신용보증기금 K1비즈니스 K1비즈니스 KOREA 신용보증재단중앙회 Kbank kakaobank toss bank

비대면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일시 2026. 06. 04(목) 장소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